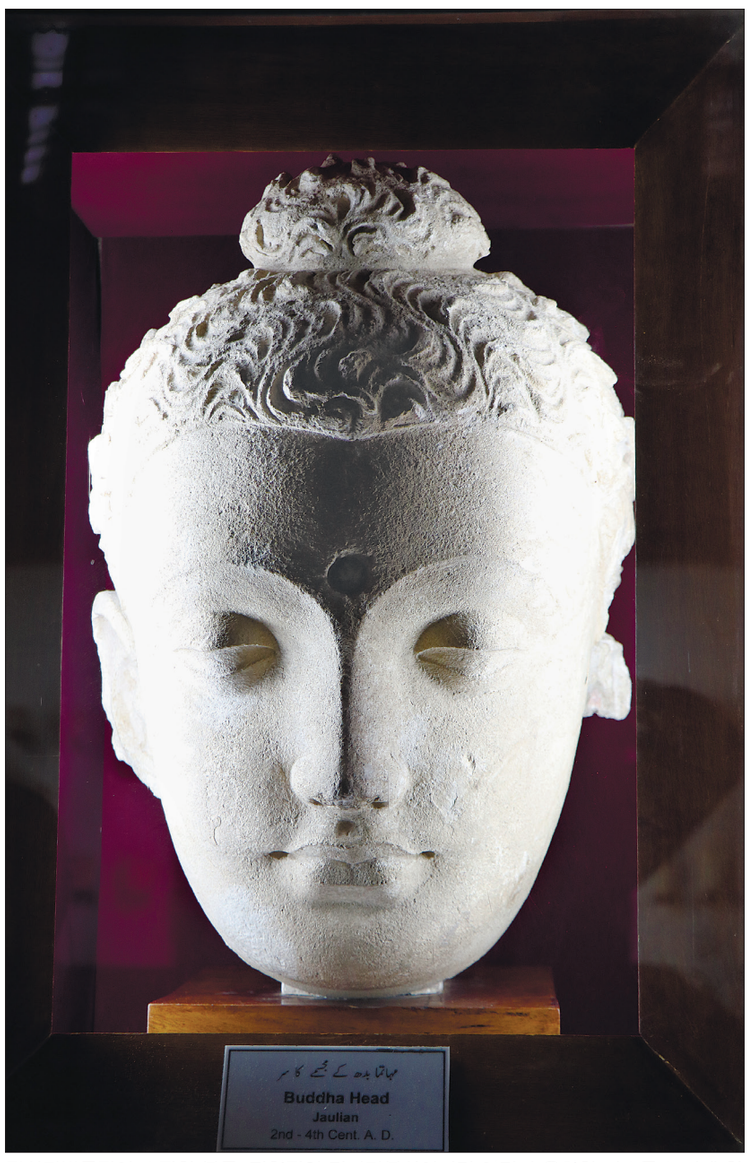


탁실라박물관이 순례단을 위해 특별히 공개한 부처님 치아사리에 예불을 올리는 스님들.



탁실라박물관이 소장한 불두. 전형적인 간다라불상이지만 어딘가 온화한 미소를 느끼게 한다. 불두는 줄리안 사원에서 발굴됐다.

원형 파괴한 이교도 훼불에 '탄식'



줄리안 사원에서 '힐링 붓다'라고 불리는 약사여래. 배꼽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청교도들은 손가락을 넣고 질병의 쾌유를 빌었다고 한다.

인도 통일한 피의 군주 '아소카왕'
전쟁 일으킨것 참회하며 불교 귀의
인도 전역에 사원 · 불탑 세우면서
지역종교 불교, 세계적으로 알려

탁실라엔 아소카왕이 남긴 유산과
쿠샨 왕조의 불교 유적 다수 있어
원형 보존된 유물은 많지 않지만
부처님 치아사리 비롯한 성보들이
파키스탄 찾은 불제자를 반겨준다



줄리안 사원 수행공간. 당시 2층 규모로 지어졌지만 파괴되면서 현재는 1층만 남았다.

'파키스탄 탁실라' B1면에서 계속

하지만 산스크리트어 표기를 'takshaçila'로 한다면 '뱀족의 왕자'라는 뜻이 된다. 유네스코는 탁실라를 '뱀족의 왕자'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마타 싯다르타를 낳은 마야부인이 뱀족인 코리야족 출신이고, 싯다르타는 어머니와 같은 코리야족 여인 야소다라와 결혼했으니 부처님을 기리는 의미라면 '잘린 머리'보다는 '뱀족의 왕자'가 올바른 해석일 것 같다.

순례단은 아소카왕이 부처님을 기리며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대탑을 세운 다르마라지카를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지만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순례단의 열의는 막을 수 없었다. 주홍빛 가사를 수한 채 계단을 오르는 스님들에게 현장견학을 나온 파키스탄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야트막한 언덕에 오르자 저 멀리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무덤 형태의 대탑이 눈에 들어왔다. 사실 좋게 표현해 '탑'이지 실제로 마주한 다르마라지카 대탑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다만 탑의 기단부 지름이 50m에 달해 과거 불교가 번성한 시기, 얼마나 위용을 떨쳤을지 짐작만 할 뿐이다. 대탑은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하나씩 쌓아올려 만들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채 수풀로 뒤덮여 알아보기 힘든 형태를 하고 있다.

순례단은 대탑 앞에서 간단히 예불을 올린 뒤 줄지어 탑돌이를 했다. 비록 탑은 파손돼 볼품없고 주위 시설은 무너져 내려 초라하지만, 순례단은 옛 수행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걸었을 길을 따라 한걸음씩 내디뎠다. 다르마라지카 대탑 주위는 작은 탑들이 둘러싸고, 그 밖에 스님들이 수행한 암실과 불상을 봉안한 공간의 터가 너른 부지 위에 자리한다. 훼손 없는 원형을 마주한다면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르마라지카 곳곳을 돌아보던 순례단이 일순간 멈춰 섰다. 부처님의 발목만 남은 족상 앞에서다. 발바닥 길이가 청소년기 아이들 키쯤 되는 족상은 발목과 부처님의 가사자락을 표현한 밑 부분만 남았다. 어떤 연유로 발바닥만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탈레반의 바미얀 석불 파괴를 떠올리게 하는 아픔이 느껴졌다. 게다가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자연적인 훼손을 입은 대부분의 불상들도 한결같이 불두만 잘린 채 보존되고 있었다. 마우리아왕조를 시작으로 쿠샨왕조까지 이어진 간다라불교는 우상숭배를 금지한 이교도들의 소행 앞에 그렇게 스러졌을 것이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만나다

아소카왕의 유산을 뒤로 하고 줄리안 사원으로 이동했다. 줄리안 사원은 2세기 쿠샨왕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언덕에 위치한 줄리안 사원은 중앙의 대탑을 기준으로 20여개의 작은 탑이 둘러싸고 있다. 이곳의 대탑은 다르마라지카보다 더 많이 훼손돼 기단부밖에 남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존경받는 승려들의 무덤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데 바로 옆에 사원터가 남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줄리안 사원은 탁트이바히, 다르마라지카처럼 언덕 위에 지어졌다. 2층짜리 건물로 각 층마다 28개의 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2층이 파괴돼 남아있지 않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은 보존돼 있다. 각 방에는 램프를 넣는 틈새와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 공간이 있다. 독특한 것은 이 창문이 벽 바깥쪽은 좁게, 안쪽은 넓게 만들어 야생동물 보호에 신경 썼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줄리안 사원을 인도 나란다대학에 견줄 만큼 불교적으로 오래되고 중요한 교육시설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역사를 정리한 대규모의 나란다대학과 비교하려면 줄리안 사원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줄리안 사원 대탑 아래에는 훼손으로 배꼽부분에 구멍이 뚫린 약사여래불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를 '힐링 붓다'라고 부르는데, 근대 청교도들이 손가락을 약사여래 배꼽에 넣고 질병의 완쾌를 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줄리안 사원을 소개한 카이버팍툰콰(KPK)주 고고학부 관계자가 스님들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권유하는 모습은 결코 달갑지 않았다. 불교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2년 전 대탑 주위에 보호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관계자 설명과 이슬람국가에선 중요문화재가 아닐지라도 불교도들에겐 성보인 약사여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아이러니라니.

다르마라지카와 줄리안 사원에 방문하기 전 순례단은 간다라불교의 산실인 탁실라 성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탁실라박물관으로 향했다. 탁실라박물관은 부처님 치아사리 2과를 소장하고 있는데, 아소카왕이 세운 다르마라지카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굴 당시 총 4과가 나왔지만 2과는 발굴을 맡은 영국인 존 마샬이 인도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실라박물관은 순례단을 위해 특별히 부처님 치아사리를 공개했다.

치아사리 등장에 순례단의 이목이 쏠렸다. 우윳빛과 갈색을 띤 치아사리는 조금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금빛 보관함에서 치아사리가 나오자 순례단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스님들은 치아사리를 공개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인사를 보내며 예불을 올리고, 불전을 모아 박물관에 전달했다.

탁실라박물관은 1~7세기 다르마라지카와 줄리안 사원 등 이 지역에서 조성된 간다라미술품을 대거 소장하고 있다. 다만 이교도의 훼불 이후 발견된 것들이어서 머리 없는 불상이거나 불두만 존재하는 게 많다.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일대기를 표현한 작은 조각들은 제법 잘 보존돼 있다.

이 박물관에서 눈길을 끄는 불상은 줄리안 사원에서 발굴된 2~4세기 불두다. 전형적인 간다라 조각이지만 다른 불상보다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느끼게 한다. 오뚝하고 갸름한 콧날을 따라 눈썹이 가늘게 이어지고, 눈은 45도 정도 아래를 보는 듯 살짝 감겨있다. 크지 않은 입은 가볍게 닫혀 있는데 입꼬리가 살짝 패여 사실감을 더한다. 나발(螺髮)은 그리스양식의 바닷물결 무늬로 정수리 머리카락을 묶은 느낌의 육계가 도드라진다.

탁실라박물관은 수많은 불상을 통해 간다라미술의 시대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간다라초기 인물의 사실적 묘사와 석가모니 부처님을 단독으로 표현한 불상은 시간이 흐르며 신비주의가 조금씩 가미된다. 머리카락을 묶은 것 같은 바닷물결 모양의 나발은 다른 간다라불상에서 소라모양으로 변하고, 부처님의 귓불도 한층 더 길어진다. 또한 머리 뒤쪽에 커다란 광배가 조성되고, 그 안에 작은 화불(化佛)도 표현된다.

한동안 박물관을 둘러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987년 중국 산시성 법문사에서 발굴된 부처님 지골사리가 2005년 우리나라에 전시된 적이 있다. 스리랑카 불치사에 있는 치아사리도 친견했었다"며 "아소카대왕이 전 세계에 진신사리를 보급하면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탁실라박물관의 치아사리도 한국불자들이 친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압둘 나시르 박물관장은 "탁실라는 기원전후 불교가 가장 번성한 곳으로 불법 전파를 위해 많은 불상이 이곳에서 제작됐다"며 "1999년 서울과 부산에서 3개월간 박물관 소장 유물을 전시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대여를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화답해 간다라유물의 한국전시 기대를 높였다.



다르마라지카에서 발굴된 부처님 치아사리. 전륜성왕 아소카가 봉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탁실라박물관 소장 불상. 이 불상은 나발이 소라모양이고 귓불이 더 길어져 간다라후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탁실라박물관에 전시된 간다라불교 유물. 많은 불상이 머리가 잘린 채 발견돼 아쉬움을 낳는다.